2022 한국문학탐방Ⅱ
발표자료집

2022.05.10.~11.

경상남도 통영, 거제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목차

I 기본 사항

1. 탐방단 구성	i
2. 준비물 및 주의사항	ii
3. 버스 자리표	iii
4. 숙소 방 배정 표	iv
5. 일정표	v
6. 탐방지도	vi
7. 탐방지 정보록	vii
8. 일일 보고서	viii
9. 발표 주제	ix

II. 발표 자료

1. 최인훈	
1.1 [박선영] 최인훈 생애	1
1.2 [박선영] 최인훈의 대표작 『광장』	2
1.3 [곽지수] 『광장』과 포로수용소의 관련성	3
1.4 [김동균] 문학사적 의의 I	5
1.5 [이성규] 문학사적 의의 II	6
2. 유치환	
2.1 [반성연] 유치환의 생애 및 대표작	8
2.2 [김상래] 유치환의 작품세계	10
2.3 [최단경] 문학사적 의의	11
2.4 [김상래], [최단경] <청마 문학관에 대하여>	13

3. 이순신	
3.1 [박희주] 이순신 『난중일기』	14
3.2 [고진현] 작품과 답사지의 연관성	16
3.3 [임소윤] 『난중일기』의 문학사적 의의	18
3.4 [이윤석] 『한산도가』의 문학사적 의의	20
4. 박경리	
4.1 [길도현] 박경리의 생애 및 대표작	22
4.2 [이세민]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과 통영의 연관성	23
4.3 [박민경] 『김약국의 딸들』의 작품설명 및 이해	25
5. 김춘수	
5.1 [정민이] 역사에 치이면서, 홀로 존재를 탐색한 대여	27
5.2 [권성진] 김춘수가 전하고자 했던 무의미시로서의 역사	29
5.3 [김수인] 김춘수 시의 뉘앙스, 통영 바다	31

I 기본 사항

2022 한국문학탐방Ⅱ 탐방단 구성

담당교수: 이병기 교수님

인솔교수: 김명준 교수님, 이승은 교수님, 서은혜 교수님

학생회장: 김동균 (010-9921-7838)

부학생회장: 이해미 (010-7464-3556)

답사부장: 윤정섭 (010-9270-9391)

조교: 김혜빈 (010-8221-0945)

학부	전공	학번	성명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21003	권성진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21032	박선영
인문학부	인문학부	20221076	이윤석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11004	곽지수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7	정민이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1	김수인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1	반성연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7002	최단경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윤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71007	김동균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71011	김상래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61070	이세민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51121	이성규
인문학부	철학전공	20201008	길도현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92546	박희주

학부	전공	학번	성명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22	김승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해미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4	민초이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81072	이연호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81097	정병규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171065	윤정섭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준비물

답사 자료집, 필기도구, 신분증, 편한 옷과 신발, 세면도구, 개인 약, 우산 등

◆ 주의사항

1. 탐방 중 주의사항

- (1) 인솔자(학생회장, 부회장, 답사부장, 조교, 교수)의 지시를 따른다.
- (2) 학교 및 학과의 일원으로서 명예롭게 행동한다.
- (3) 인원 점검 시간을 엄수한다.
- (4) 명찰을 항상 패용한다.
- (5) 발표는 큰 목소리로 또렷하게 한다.
- (6)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
- (7) 자유 관람 시에도 안전을 위하여 조별로 이동한다.
- (8) 탐방 도중 개인행동 및 무단이탈을 하지 않는다.
- (9) 도로 횡단 시 차량에 유의한다.
- (10)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11) 신체에 이상이 있을 시 인솔자에게 바로 알린다.
- (12)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즐겁게 생활한다.

2. 차량 내 주의사항

- (1)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2) 차량번호를 숙지해둔다.
- (3) 탐방 차량임을 확인하고 탑승한다.
- (4) 승차하기 전 신발을 털어 차내 먼지를 최소화한다.
- (5) 하차할 때 쓰레기를 모아서 정리한다.
- (6) 하차할 때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3. 숙소 내 주의사항

- (1)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동한다.
- (2) 개인 위생에 신경 쓴다.
- (3)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음주는 삼간다.
- (4) 인솔자의 허락 없이 숙소를 이탈하지 않는다.
- (5)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둔다.

2022 한국문학탐방Ⅱ 버스 자리표

<버스 자리표>

윤정섭(답사부장)	김혜빈(조교)		이병기 교수님
고진현	박희주		김명준 교수님
이성규	이세민		이승은 교수님
이윤석	권성진		서은혜 교수님
정민이	길도현		반성연
임소윤	최단경		김동균(학생회장)
곽지수	박선영		이연호
김승현	박민경		김수인
정병규	민초이	김상래	이혜미(부학생회장)

2022 한국문학탐방Ⅱ 일정표

* 지역: 경상남도 통영, 거제

구분	1일차	2일차
07		07:30 기상 및 준비(1시간)
08		08:30 출발 및 이동(10분) 08:40 조식(1시간, 가마솥시랏국 충무김밥)
09	07:00 학교 집합(대학본부) 07:30 출발 및 이동(약 6시간)	09:40 출발 및 이동(50분)
10	- 단양팔경휴게소 휴식(20분) - 청도새마을휴게소 휴식(10분)	10:30 청마문학관 도착 및 답사(40분) ②조 발표 - 유치환
11		11:10 출발 및 이동(버스 10분) 11:20 동피랑 벽화마을 답사(1시간 10분)
12		12:30 출발 및 이동(도보 10분) 12:40 중식(40분, 통영찜밥)
13	13:30 중식(1시간, 가덕휴게소)	13:20 출발 및 이동(도보 30분) - 세병관 > 박경리생가터 13:50 박경리생가터 도착 및 답사(20분) ③조 발표 - 이순신 ④조 발표 - 박경리
14	14:30 출발 및 이동(45분)	14:10 출발 및 이동(도보 15분) - 서피랑공원 > 백석 시비 > 총렬사 14:25 총렬사 주차장 도착 및 출발(10분) 14:35 김춘수유품전시관 도착 및 답사(25분) ⑤조 발표 - 김춘수
15	15:15 거제 포로수용소 도착 및 답사(1시간 10분) ①조 발표 - 최인훈 <광장>	15:00 출발 및 이동(3시간 20분)
16	16:25 출발 및 이동(45분)	
17	17:10 바람의 언덕 답사(1시간 30분)	
18	18:40 석식(1시간, 새바다어부Hits)	18:20 석식(장수반점, 60분)
19	19:40 출발 및 이동(50분)	19:20 출발 및 이동(2시간 10분)
20	20:30 숙소 도착(소노감 거제)	
21	21:00 개인 정비 및 취침	21:30 한림대학교 도착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등 답사 운영 방식 변동 가능

2022 한국문학탐방Ⅱ 탐방지 주소록

장소명	주소	전화번호
[휴게소]단양팔경휴게소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기동2길 32-37	043-423-5401
[휴게소]청도새마을휴게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59-49	054-373-8121
[휴게소]가덕휴게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가대로 2571	051-715-2200
[관람]거제 포로수용소	경남 거제시 계룡로 61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055-639-0625
[관람]바람의 언덕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14-47	
[식사]새바다어부횃집	경남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1길 52	055-633-1548
[숙소]소노캄거제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660	1588-4888
[식사]가마솔시락국	경상남도 통영시 새터길 12-10	055-646-8843
[관람]청마박물관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1길 82	055-650-2660
[관람]동피랑 벽화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동피랑1길 6-18	055-650-7418
[식사]통영쌈밥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160 충무데파트	055-646-0034
[관람]세병관	경상남도 통영시 세병로 27	055-645-3805
[관람]박경리생가터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1길 76-38	
[관람]서피랑공원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6-1	
[관람]충렬사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251	055-645-3229
[관람]김춘수유품전시관	경상남도 통영시 해평5길 142-16	055-650-2670
[식사]장수반점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42	054-637-8037

2022 한국문학탐방Ⅱ 일일 보고서

조		학번		이름	
일시		2021년 5월 일 (일차)			
탐방 장소		탐방 내용			
【문학 창작 기반과 관련한 감상】					
【발표 내용 및 답사 일정에 관한 의견】					

발표 주제

조	작가 및 작품명	발표 장소
1조	최인훈 <광장>	[거제] 포로수용소
2조	유치환	[통영] 청마문학관
3조	이순신 <난중일기>와 시조	[통영] 세병관
4조	박경리	[통영] 박경리 생가터
5조	김춘수	[통영] 통영 바다

	조장	조원			객원
1조	김동균	이성규	곽지수	박선영	김승현
2조	김상래	반성연	최단경		정병규
3조	임소윤	고진현	이윤석	박희주	윤정섭
4조	박민경	이세민	길도현		이혜미
5조	김수인	정민이	권성진		민초이

II. 발표 자료

최인훈 <광장>

-최인훈 생애

20221032 박선영

-출생과 전쟁

최인훈은 1936년 4월 13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한다. 1943년 회령 북국민학교에 입학하고,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닌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공산정권에 의해 목재 상인이던 아버지가 부르주아지로 분류되어 1947년 가족들과 함께 원산으로 이주한다. 최인훈은 학년을 뛰어넘어 원산중학교 2학년에 입학한다. 원산중학교를 졸업 후 원산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50년에 6.25가 발발하고 10월부터 시작된 국군 철수를 따라 12월에 원산항에서 해군함정 LST편으로 전 가족이 월남한다. 1개월정도 부산 피난민 수용소를 거쳐 친척이 있는 목포로 이주한다. 1951년 목포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다닌 후 1952년 피난수도인 부산으로 돌아와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다. 부산에서 자신의 최초 작품인 <두만강>을 집필한다. 대학교 재학 중이던 1955년 [새벽]지에 잡지 책임추천의 형식으로 시 <수정>이 추천된다. 이 후 1957년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대학을 중퇴한다.

-문학 활동의 시작과 작품들

대학 중퇴 후 1958년 군에 입대하여 1963년까지 6년간 통역 장교로 근무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1959년 <Grey 구락부 전말기> ([자유문학] 10월)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하고, 이어서 <라울전> ([자유문학] 12월)이 안수길에 의해 추천되어 공식적으로 소설가로 위치를 굳힌다. 1960년에는 [새벽]에 중편 소설인 <광장>을 발표하였다. 이 후 주요작품에는 <회색인>, <서유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태풍>, <가면고>, <구운몽>, <우상의 집>, <크리스마스 캐럴>, <총독의 소리> 등이 있다. 1960년대 전 기간과 1970년대의 일부 기간을 합해서 질적, 양적인 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김으로써 '전후최대의 작가'¹⁾ 라는 평가를 얻는다.

-70년대와 그 이후의 삶

1973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세계 작가 프로그램>의 초청으로 9월 미국으로 가서 3년간 체류하며 <광장>을 개작하고 1976년 5월 미국에서 귀국한다. <옛날 옛적에 흰어이 흰이>를 발표하고 <최인훈 전집>(문학과지성사) 간행을 시작한다. 이후 1977년 서울예술전문대학 교수에 취임한 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동동 낙랑동>,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발표한다. 1994년 자전소설인 <화두>를 간행한다. 2001년 5월 19일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취임한다. 2002년까지 장편, 단편 소설과 희곡 총 66여 편을 발표한다. 2018년 6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지고 같은 해 7월 23일 향년 82세로 별세한다.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981~985

최인훈 <광장>

-최인훈의 대표작 <광장>

20221032 박선영

<광장>은 4.19 이후 민주화의 분위기와 작가의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혁명 이후 남북한 통일론에 대한 논의가 자유로워지면서 등장했다. 해방 직후에서 6.25 전쟁 이후 까지를 배경으로 남북한의 이념 대립과 그 사이에서 '이명준'이라는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남북한 이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소설로 꼽힌다.

주인공 이명준은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임이 밝혀지자 형사들에게 강압적인 취조와 폭력을 겪으며 밀실의 무너짐을 느끼고, 연인이었던 은애를 놔두고 월북한다. 월북해서도 혁명이 없고 왜곡된 이념만 있는 북한에 실망하며 연인인 은혜에게 의지한다. 하지만 은혜가 말도 없이 떠난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명준은 군관으로 참전하고, 다시 만난 은혜는 뱃속에 아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다. 은혜를 잊고 포로가 된 이명준은 계속해서 설득 받아도, 실망했던 남북이 아닌 중립국을 택한다. 그는 중립국으로 가는 타르고 호에서 갈매기를 보고 은혜와 아이를 떠올리며 바다야말로 푸른 광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타르고 호에 '미스터 리'라는 실존자가 생긴 것이 알려지며 소설이 끝난다.

이명준은 남한을 '타락한 광장' (자유가 결여된 곳)으로 북한을 '타락한 밀실' (사회적 소통이 결여된 곳)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광장'은 타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공간이고 사회적 삶의 공간이며, 현실세계이다. 이명준은 광장에서 '밀실'은 개인적인 공간이고, 내밀한 삶의 공간으로, 내면세계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대립적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며, 이 광장과 밀실이 같이 있는 곳이 이명준이 바라던 이상적인 현실이다.

"1960년 [새벽]지에 발표된 중편 소설 <광장>은 참여와 순수 논쟁이라는 문단의 흐름에 참여의 불길을 당기는 역할을 하였다"는 말처럼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²⁾ 또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다루기 어려운 정치현실을 남과 북 공통으로 냉정하게 비판했다.

《참고문헌》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윤병로, 「새세대의 충격과 60년대 소설」, 현대문학, 2002

2) 윤병로, 「새세대의 충격과 60년대 소설」, 현대문학, 2002, pp.418

최인훈 <광장>

-<광장>과 포로수용소의 관련성

20211004 곽지수

<광장>의 시점은 6·25 시기이다. 6·25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1960년 대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광장>은 <광장>은 6·25 전후 남과 북의 무책임한 국제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최인훈 작가는 주인공 이명준을 통해 남한에서의 모욕적인 삶,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위악적 현실, 포로수용소에서의 모멸적인 체험을 통과한 후 제 3국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인천항을 떠난 배에서 투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광장>은 발행 초기에는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서가 되었다. 대학생들의 애독서·필독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출제되면서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립국으로 간 76인의 포로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76인의 중립국행 포로 가운데 가장 지적이고 엘리트적인 면모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이는 주영복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 수기를 간행했으며, 특히 인민군 소좌 출신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전 소련 군사고문이 작성한 공병 작전 명령서를 직접 한글로 번역한 당사자로 이름을 얻었다. 인민군 소좌이자 총참모부 출신으로 제3국행을 택한 주영복은 엘리트이자 지식인으로 중립국행 포로를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되었다. 1990년 주영복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주간지는 최인훈과 주영복의 인터뷰를 주선하며, “소설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의 삶이 주영복의 현실이었다는 것이다.³⁾

중립국행 포로들이 주목받지 못한 데도 같은 상황이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광장>을 통해 불멸성을 획득한 중립국행 포로 문제는 한국전쟁 종전(終戰) 무렵부터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 바 있다. 최인훈 자신 대학 시절 어느 방학 때 신문기사에서 관련 보도를 본 것이 <광장>의 출발이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그의 회상과 일치하는바 중립국행 포로 문제가 신문지상에 가장 빈번하게 오르내린 것은 <광장>의 전쟁과 포로들이 인도를 향해 떠난 1954년 2월이다. 물론 신문기사의 접근 방식은 <광장>과는 판이했다. 전쟁이 갓 끝났던 당시 중립국행 포로를 두고 긍정적 상상을 펼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바다. 중립국행이라는 문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포로들이 자유의사로 제3국을 택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태도가 일반적이기마저 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중립국행 포로 76인이 인도군 귀국선에 동승한 데 대해 ‘인도군의 납치’라고 항의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남북한 출신 포로의 중립국행을 지원하는 인도군의 움직임은 “한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로 규정됐으며 포로들 자신은 “인도군과 미군의 냉엄한 감시” 때문에 최종 번복의 기회를 잃은 안타까운 존재로 재현됐다. 반공청년단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확성기를 틀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중에 포로들은 “불안과 회한”의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떠나갔다고 한다.⁴⁾

<광장>에서는 낙동강 전투 이후 이명준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서술이 등장한다. “국토의 끝 남해 바다에 떠 있는 이 섬 거제도도 꼭 관 같았다. 포로라는 이름의 죽은 병사들. 그 커다란 관 속에 비웃 두름처럼 무력하게 드러누워 잠드는 광장이 그 관이었다”라는 서술에서 이명준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으리라는 점과 이곳의 전쟁 포로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25 시기 유엔군과 인민군이 발표한 바를 종합하면 약 144,000명의 포로가 발생하여, 거제도 포로 수용소

3) 정병준, 「최인훈의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사, 2019, pp.88~104

4) 권보드래, 「『광장』의 전쟁과 포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7, pp.151~193

에 수용되어 있었다. <광장>이 개작되는 과정에서 최인훈 자신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표현하려고 한 것이 주인공 이명준의 환각이라는 설명이 그의 산문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에 대한 생각」에 수록되어 있는데, <광장>을 살펴보면 이명준의 환각 증세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였다.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에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방문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줬다”고 최인훈은 말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보니까 텐트에 침상은 없고, 온돌도 마루도 없는 데다 거적때기나 깔고 그 위에 침구 같은 걸 쥘겠다”는 상상력이 들었다고 작가는 술회했다.⁵⁾

<광장>에서 이명준이 중립국행 타고르호 안에서 고립되는 서사는 중립국 선택 포로들의 인도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중립국 송환위원회 회원국을 비롯한 당대 국제사회에 책임의 문제를 제기한다. 중립국행을 원하였지만 중립국에 도착하지 못한 무수한 중립국 선택 포로들의 운명을 <광장>에서의 이명준의 죽음은 표상한다. 최인훈의 <광장>은 6·25 시기 중립국행 도중에 사망한 중립국 선택 포로 이명준의 서사를 다룸으로써,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실질적 부재로 인해 ‘법없음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타고르호를 조명한다. 중립국 선택 포로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던 1950-60년대의 국제사회를 청년 지식인으로 살 수 없었던 죽음 직전의 석방 포로 이명준의 시각으로 이같이 비판한 <광장>은 현대소설이다.⁶⁾

《참고문헌》

- 정병준, 「최인훈의 『광장』과 중립국행 76인의 포로」, 역사비평사, 2019
권보드래, 「『광장』의 전쟁과 포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7
선민서, 「냉전의 대리전으로서의 6·25와 <광장>」, 국어국문학, 2019

5) 선민서, 「냉전의 대리전으로서의 6·25와 <광장>」, 국어국문학, 2019, pp.329~366

6) 위의 논문.

최인훈 <광장>

-문학사적 의의 I

20171007 김동균

1985년 『광장』을 영어로 번역한 케빈 오로크(Kevin O'Rourke)는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에 대해 “적어도 서구의 감수성에서 바라볼 때, 명준은 그의 목적을 위해 남과 북의 여자들을 이용하는 끔찍한 남자인 데 반해, 1960년대 한국 문학에서는 고뇌하는 지성인 타입으로 묘사된 이상적인 존재라니!”³⁰⁾라며 『광장』의 주인공을 둘러싼 한국 문단의 긍정적 수용 양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오로크의 감상처럼, 한국 전쟁을 둘러싼 『광장』의 역사적 맥락을 외부의 눈, 즉 한국적 특수성을 배제한 보편적인 세계 문학의 독법으로 바라볼 때, 여성 착취자로서의 명준의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정치이데올로기가 아닌 여성 문제로 『광장』을 독해할 때 정전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며 우려해왔다. 하지만 이는 지식인 명준을 작가 최인훈으로 환원하는 시각으로, 작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과도한 애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광장』의 정전으로서의 위상 저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려는 작가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지속된 개작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문제의식의 전환을 불러 일으켜 1960년대가 아닌 2010년대에 『광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묻게 하였다. 작가는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여성 형상화에서 이 작품의 세대적 한계가 부각되었다. 이 작품의 사랑은 이데올로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60년대식 사랑으로, 헤게모니와 연관된 사랑이다. 명준의 사랑은 인류 본연의 보편적 사랑으로 보기에 왜곡되고 뒤틀려 있으며 “내셔널리즘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이기에, 이 작품을 “사랑에의 의무”로 독해하라는 제안은 순진한 주문으로 보인다. 명준의 주체화는 궁극적으로 죽은 딸을 상징하는 어린 갈매기를 통해 비롯되었다. 여성을 상징하는 갈매기는 이분법적 헤게모니 쟁취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성 지식인의 집착을 일깨워주며, 여성을 단지 욕망하는 육체로 대상화한 남성 지식인의 치부를 드러낸다. 제국의 지배에서 식민지 피지배 남성으로, 식민지 피지배 남성에서 식민지 피지배 여성으로 치환되는 폭력의 순환구조는 명준과 관련된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명준은 죽음의 순간에도 헤게모니에 집착한다. 작가는 한 남성주체의 뒤틀린 욕망을 환기하는 소재로 갈매기로 환생한 여성 주체를 등장시켜,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된 온전한 사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⁷⁾

《참고문헌》

김한성, 「제국의 바다, 식민지 육지: 공간 의식으로 본 광장」,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7) 김한성, 「제국의 바다, 식민지 육지: 공간 의식으로 본 광장」,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08, pp.250~251

최인훈 <광장>

-문학사적 의의 II

20151121 이성규

남북통일의 문제가 민족적인 지상과제로 현실의 문제인데 때마침 광장은 전정권(前政權) 시대에 다루기 어려웠던 북한의 현실성에까지 무대를 확대시키고 남북 어느 편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냉정하게 비판하고 ‘맹렬한 리얼리티’로 ‘독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남북통일의 길이 열리는 광장으로 연결 짓는다. 세계를 지탱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였던 1989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생산주의적 합리성이라는 허울 아래 인간소외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장악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입법적인 인간,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려는 담론 실천으로 최인훈의 문학을 파악하려는 커다란 흐름인 것이다.⁸⁾

광장은 이념과 형이상학에 집중하고, 전후 소설이 전쟁의 참상을 재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반면 광장은 전쟁과 포로 체험의 실재를 묘사하는 데 무관심하다. 1950년대를 통해 적잖이 논의되었으나 반공주의적 해석들에 갇혀 있던 중립국행 포로 문제를 초점화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런 특성에 힘입어서이다. 이어령이 죽어 없는 비극에서 중립국행 포로를 ‘도피’로 기호화한 반면 최인훈의 광장은 이를 냉전 체제에의 도전으로 해석해 냈으며, 그를 통해 중립·중립화, 중립주의를 뒤섞으면서 ‘중립’ 개념을 굴절, 확장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광장은 이런 방식으로 4.19의 정신을 문학화했으며 또한 ‘존재를 위한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을 넘어설 길을 모색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포로 서사들을 씨줄과 날줄 삼아 광장의 특이성을 가늠하고, 중립국행 포로에 대한 당대의 발화 속 광장의 좌표를 조정하며, 나아가 한국전쟁의 성격 자체에 대한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⁹⁾

광장은 전쟁의 즉물적 리얼리티나 전쟁의 치유책으로서의 휴머니즘을 모두 거부한다. 작가 최인훈의 회고를 따라가다 보면 이는 불성실의 결과라기보다 의도적 단절의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인훈은 그의 주인공들을 생존주의에서 해방시키고 가족주의로부터 풀어놓는다.¹⁰⁾

광장은 바로 이 시기에 ‘중립’과 ‘생성’의 상상력을 전면화함으로써 4.19의 정신을 아로새겼다. 전쟁 없는 전쟁 소설, 포로 없는 포로 소설로서의 광장은 또한 중립국행 포로의 현실을 삭제한 중립의 서사다. 이명준이 희망을 잃어갈수록 중립국 상상은 더욱 화사해지고, 이명준 개인의 미래가 소박해질수록 한반도의 미래상은 시시각각 진화하여, 마침내 중립국-한반도의 미래상이 겹친 채 “이런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을까”(197)라는 감탄을 날고 있는 형국이다. ‘중립’이란 개념의 왜곡·확장·오용이야말로 이 유토피아적 순간의 비밀이다.¹¹⁾

광장은 한국전쟁 당시 비교전국(非交戰國)을 가리켰던 ‘중립’을 멀리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4.19 직후 민족 생존 방략으로 제기된 ‘중립화’를, 그리고 1950~60년대 제3세계의 방략이었던 ‘중립주의’를 차례로 건너뛰어 마침내 유토피아적 몽상에 이른다. ‘중립’과 ‘중립화’와 ‘중립주의’-각기 다른 강도의 불온성을 간직한 이 개념들은 광장의 꿈속에 뒤섞이고, 정치적 갈망을 채움으로써 개인의 실존까지 구제한다. ‘중립국’으로의 공간적 이동과 ‘미래의 한반도’로의 시간적 비약 역시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듯 서로 다른 가능성의 층위가 동시에 수용

8) 최윤경, 「최인훈 소설의 연구사 연구」,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pp.275

9) 권보드래, 「『광장』의 전쟁과 포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7, pp.152

10) 위의 논문, pp.160

11) 위의 논문, pp.184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4.19 직후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생성을 향한 운동성이 충만했던 그 때 광장은 그 운동성 자체를 기록했고, 그럼으로써 오래도록 4.19의 문학으로 회자될 수 있었다.¹²⁾

《참고문헌》

최윤경, 「최인훈 소설의 연구사 연구」,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권보드래, 「『광장』의 전쟁과 포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7

12) 위의 논문, pp.185

바위와 같은 굳건한 의지 - 청마 유치환에 대하여

-<유치환의 생애 및 대표작>

20197001 반성연

유치환은 1908년 7월 14일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의사였으며, 5남 2녀 중 차남으로, 두 살 때부터 통영(당시 충무)으로 이주하여 유년기를 보냈다. 11세까지 외가에서 한문을 배운 유치환은 통영공립보통학교(현 통영초등학교) 4학년을 수료한 뒤 일본 도요야마(豊山) 중학교에 입학했다. 유치환은 이미 이 무렵 형 유치진이 중심이 된 동인지 『토성(土聲)』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열아홉 살이 되던 1926년에 다시 귀국하여 동래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이듬해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나 퇴폐적인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1년 만에 중퇴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시단을 풍미하던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과 정지용(鄭芝溶)의 시에 감동하여, 형 유치진과 함께 회람잡지 『소제부(掃除夫)』를 만들어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1931년 『문예월간(文藝月刊)』에 시 「정적(靜寂)」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했고, 그 뒤 잡다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1937년 부산에서 문예동인지 『생리(生理)』를 주재하여 5집까지 간행하고, 1939년 첫 시집 『청마시초(靑馬詩抄)』를 발간하였다. 이 시집에는 그의 초기 대표작인 「깃발」·「그리움」·「일월」 등 55편이 수록되었다. 이 시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배워온 유명한 작품들이다.

1940년 가족을 거느리고 만주 연수현(煙首縣)으로 이주하여, 농장 관리인 등에 종사하면서 5년여에 걸쳐 온갖 고생을 하다가, 광복 직전에 귀국하였다. 이때 만주의 황량한 광야를 배경으로 한 허무 의식과 가열한 생의 의지를 쓴 시 「절도(絶島)」·「수(首)」·「절명지(絶命地)」 등이 두 번째 시집 『생명의 서』에 수록되었다. 광복 후에는 청년문학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문학운동을 전개하였고, 6·25전쟁 중에는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의 일원으로 보병 3사단에 종군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집 『보병과 더불어』는 이 무렵에 쓴 시들을 엮은 것이다. 1953년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줄곧 교직에 몸담았다. 안의중학교(安義中學校) 교장을 시작으로 하여 경주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를 거쳐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교통사고로 작고했다.

그는 끊임없이 시를 썼다. 40여 년에 걸친 그의 시작(詩作)은 시종 남성적 어조로 일관되어 있으며, 생활과 자연, 애련과 의지 등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시 세계를 ‘생명에의 의지’, ‘허무의 의지’, ‘비정의 철학’, ‘신채호적(申采浩的)인 선비 기질의 시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가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기 때문이다. 서정주(徐廷柱)와 함께 이른바 ‘생명파 시인’으로 출발한 그의 시는 생명에 대한 긍정과 범신론적 자연애로 통하는 열애가 그 바탕을 이룬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한편으로는 동양적인 허정(虛靜)과 무위(無爲)의 세계를 추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허무를 강인한 원시적 의지로 초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에 허무 의지의 극치인 ‘바위’와 고고함의 상징인 ‘나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계에 기초한 것이다. 현재 그의 묘지는 부산광역시 서구 하단동에 있으며, 그의 시비는 경주 불국사, 부산 에덴공원, 통영 남망공원(南望公園) 등에 세워졌다. 2000년 2월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청마문학관이 개관되었다.

시집으로는 『울릉도』 · 『청령일기(蜻蛉日記)』 · 『청마시집』 · 『제9시집』 · 『유치환선집』 ·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 『미루나무와 남풍』 · 『파도야 어찌란 말이냐』 등 다수이다. 수상록으로는 『예루살렘의 닭』과 두 권의 수필집,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 등이 있다.

<유치환의 작품세계>

20171011 김상래

유치환의 시를 들여다보면 인생에 대한 허무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문 등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시 속에 담긴 소재 역시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용되었다.

소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유치환 역시 다른 시인들처럼 여러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간 그 자체는 말할 것 없고 사회, 자연, 사물, 도시, 문명 등이다. 제목만을 보더라도 <나의 거래>, <전선에서> 등은 사회를, <단풍>, <산> 등은 자연을 <문>, <깃발>, <편지> 등은 사물을 <우체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비행기> 등은 도시문명을 시로 쓴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치환의 시의 소재들은 대체로 인간의 이야기를 담기 위하여 취재된다. 사회나 도시문명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그 이외 다른 것들 즉 자연이나 사물 등도 유치환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원된 도구,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유치환은 그 자체를 대상 삼아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자연이나 사물을 시에 끌어들인다.

또한 유치환은 시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산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식민지 체험에 관한 자신의 심경과 체험에서 발생된 자신의 시적 세계관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치환의 허무의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¹³⁾

《참고문헌》

이재훈, 「유치환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虛無意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2, 2007

13) 이재훈, 「유치환 시에 나타난 허무의식(虛無意識)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2, 2007, pp.146~147

<문학사적 의의>

20197002 최단경

지금까지의 청마시 연구는 언어 기교론이나 메타포에 의존한 분석보다는 그 정신의 깊이를 해명하는데 보다 많이 할애되었으며, 또 시인 자신이 일찍이 언급하였던 ‘생명’, ‘허무의지’, ‘이념’ 등의 실체를 밝히는데 논의의 상당 부분이 빚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청마의 초기시에서부터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의 시는 오랜 시력에도 불구하고 변증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지 않는 단선적인 구조의 시로 평가되기도 했다.¹⁴⁾

청마는 1930년대 이래 한국시단에 큰 획을 그어 부동의 위치를 점유한 시인이지만 평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평가되고 있다. 서정주는 1950년에 발간된 『現代朝鮮名詩選』(현대조선명시선)의 해설 부분에서 청마를 “인간의 가치를 근원적으로 성찰하려는 생명파의 한 시인이었다.”¹⁵⁾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생명파로 묶어 1930년대 한국 시단에 새로 등장한 유파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청마는 허무주의적 휴머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낭만적 시인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또 때로는, 서정주처럼 생명파의 시인으로, 김윤식의 평처럼 모순의 시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¹⁶⁾ 허무와 의지와 신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허무의지와 생명의 의지를 표출한 비시적 詩性(시성)을 보이면서도 오늘날 한국 시단의 대가적 詩聖(시성)으로 추앙 받게 된 것은 오직 대가로서 출발하여 대가로 지속되었고, 또 대가다운 풍모의 시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시단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유교적 윤리의식이 투철한 시인이었다. 자신의 시 제목 「바위」처럼 굳건한 의지로 한 평생을 살았다. 「頌歌(송가)」는 그러한 세계관을 보여준다.¹⁷⁾ 문덕수는 “그는 혁명가도 영웅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大人君子(대인군자)로 추앙하는 후학들도 적지 않다. 사실 그는 민초의 한 사람으로서 넓고 큰 사람이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부조리에 분노로 맞서며 생명옹호에 자신을 불태운 志士(지사)요, 교육자였다”면서, “미당 이 ‘名匠(명장)’이라면, 청마는 ‘巨匠(거장)’ 또는 ‘大人(대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하였다.¹⁸⁾ 또한 일생 그 누구보다 맑고 곧은 이념의 꾀대 아래 살고자 했던 청마는 어두운 시대를 누구보다 험열하게 살면서도 자아와 생명의 탐구를 그의 시적 화두로 삼았던 시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는 한국시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열어보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적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¹⁹⁾

14) 박유미, 「유치환시 연구」, 돈암어문학 7, 1995, pp.88(김윤식, 청마론, 한국 현대 시론 비판, 일지사, 1980에서 재인용.)

15) 이균상, 「현대문학 : 청마(靑馬) 유치환과 대여(大餘) 김춘수의 시적 지향점」, 士林語文研究 16, 2006, pp.11(서정주, 「생명파」,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69, pp.22~23에서 재인용.)

16) 위의 논문, pp.11(김춘수의 「유치환론」, 문예, 통권17호, 서정주의 「의지의 시인 유치환」, 『시창작법』, 문덕수의 「청마 유치환론」 『현대문학』 통권35~41호와 문덕수의 「淸馬詩의 문제점」 『詩文學』 311, 1997.6. 김종길의 「청마유치환론」, 『진실과 언어』, 『진실과 언어』, 김시태의 「청마문학의 재조명」, 『詩文學』 제32권 제10호, 2002, 임수만의 「청마 시의 낭만적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등의 연구에의한 해석에서 재인용.)

17) 위의 논문, pp.11

18) 위의 논문, pp.13(문덕수, 『청마유치환평전』 시문학사, 2004.에서 재인용.)

19) 박유미, 「유치환시 연구」, 돈암어문학 7, 1995, pp.111

《참고문헌》

박유미, 「유치환시 연구」, 돈암어문학 7, 1995

이균상, 「현대문학 : 청마(靑馬) 유치환과 대여(大餘) 김춘수의 시적 지향점」, 士林語文研究 16, 2006

<청마 문학관에 대하여>

20171011 김상래

20197002 최단경

※청마 문학관이란?

청마문학관은 청마 유치환 靑馬 柳致環 시인(1908~1967)의 문학정신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2월 14일 4,038㎡의 부지에 문학관(전시관)과 생가(본채, 아래채)를 복원, 망일봉 기슭에 개관하였습니다.

※문학관 소개 및 관광 팁

청마문학관은 크게 도입부와 세 개의 주제로 짜여있다. 도입부에서는 청마를 비롯한 통영출신의 유명 예술인들의 예술혼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인 "청마의 생애" 코너에서는 청마의 생애를 연도별로 정리, "인간 유치환"에 대해 심도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청마의 문학" 코너에서는 시대별 작품 경향과 대표적 감상을 통하여 청마문학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 번째 주제인 "청마의 발자취" 코너에서는 청마의 각종 유물과 관련 서적의 전시를 통하여 생전의 숨결과 채취를 입체적으로 느끼면서 고결했던 삶과 치열했던 문학정신을 총체적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렇게 청마문학관은 각 코너마다 존재하는 주제들이 명확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코너 주제에 초점을 맞춰 관광을 한다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마 문학관 관련 에피소드

청마문학관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다. 이곳에는 청마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자리가 청마가 태어난 곳은 아니다. 원래 생가가 있던 자리는 너무 좁아 이곳에 생가를 복원하였다. 단출하고 소박한 듯한 초가집의 모습이다. 문학관 내부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빛바랜 청마의 육필 원고가 컴퓨터 자판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복원한 그의 생가에는 소박한 방 2칸과 부엌이 있는 안채와 창고를 겸한 아래채가 있어 유치환 시인이 삶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특히 의원이었던 아버지가 운영하던 유약국과 관련된 유품도 있어 관광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²⁰⁾

《참고문헌》

청마문학회, 「다시 읽는 유치환-청마 탄신 100 주년 기념 문집」, 시문학사, 2008

통영시 청마 문학관, <http://www.tongyeong.go.kr/literature.web>.2022.04.22

UTOUR통영관광포,

<https://www.utour.go.kr/01198/01203/02123.web?amode=view&idx=1690>&.2022.04.22.

20) UTOUR통영관광포, <https://www.utour.go.kr/01198/01203/02123.web?amode=view&idx=1690>&.2022.04.22

이순신 <난중일기>

-이순신의 생애와 시조

20192546 박희주

-이순신의 출생과 어린 시절

21)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 서울 건천동에서 아버지(李貞)와 어머니 초계 변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마른내골인데 현재 충무로 근처의 중구 인현동 1가 40번지 부근이다. 원래 마른내골이란 이름은 남산 생민동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천이 비가 오지 않으면 늘 말라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이순신은 태어날 때부터 가문과 집안으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 일화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순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인 변씨가 꿈을 꿔는데 시조부였던 이백록이 꿈에 나타나 “이 아이는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니 이름을 순신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한 것이나 점쟁이가 “이 아이가 세가 되면 북방의 대장이 되리라 50 .”고 예언하였다는 일화가 그것이다. 이순신은 어린 시절 항상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며 마을에서 비록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의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이가 있으면 곧 화살을 겨누었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도 그를 무섭게 여기고 그 집 문 앞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무인이 되기 위한 노력

1565년 8월, 이순신은 보성군수를 지낸 방진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이순신은 장인어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22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예를 연마하였다. 그리고 10년간 준비를 한 끝에 가까스로 무과에 급제했다. 이순신은 장인어른인 방진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에 힘입어 무과 시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 이순신은 무예에 입문한 지 10년 만인 32살의 늦은 나이에 식년 무과에 합격했다.

-이순신의 전투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옥포에서의 첫 해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었으며 이듬해에도 재차 부산과 웅천에 있던 일본군을 격파함으로써 남해안 일대의 일본 수군을 완전히 일소한 뒤 한산도로 진영을 옮겨 최초의 22)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후임 원균이 7월에 칠천량해전에서 일본군에 참패하자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그는 13척의 함선을 거느리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군과의 대결에서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순신은 1598년 11월에 노랑에 집결한 일본군과 혼전을 벌이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수많은 해전에서 왜선 70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런 전과는 세계해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것이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23)임진왜란 7년의 기록인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의 리더십이나 효충사상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과거시험을 보게 해서 부하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전

21) 박재광,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임진왜란」, 서울역사편찬원, 2008, pp.2

22) 임진왜란 중 각 도 수사(水使)간의 원활한 지휘 체계를 위하여 1593년 8월 삼도수군통제사라는 관직을 신설했다.

23) 박영희,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효충사상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pp.5

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의 공로를 장계에 적어 보고함으로써 공정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무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까지 훌륭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의 <한산도가>

<한산도가>는 통영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쓴 시조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은 근심하는 이순신의 마음과 생각이 잘 나타난 시조이다. ²⁴⁾한산도대첩은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린다. 따라서 “큰 칼”, “깊은 시름”이나 “나의 애”와 같은 부정적인 시어들이 많이 보이며 이런 시어들이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들이다.

《참고문헌》

박재광,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임진왜란」, 서울역사편찬원, 2008

박영희,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효충사상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2015

24) 한국사 사전 2- 역사 사건 문화와 사상

작품과 답사지의 연관성

- 세병관, 이충무공 유적, 통영 총렬사

20191006 고진현

1. 이순신 장군과 통영지역의 연관성

통영은 이순신 장군과 가장 밀접한 지역으로 ‘통영’이라는 지역명 자체가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유래되었고 한산도대첩의 쾌거를 이룬 장소이기도 하다.²⁵⁾ 또한 오늘날의 통영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무형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이 살아 숨쉬는 뿐만 아니라, 조선 수군의 총사령부였던 통제영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전통시대 군사계획도시의 면모가 곳곳에 남아 있다.²⁶⁾

2. 이순신 장군의 유적들, 세병관, 이충무공 유적, 통영 총렬사

답사장소인 세병관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 37년(1604년) 통제영이 현재의 위치인 경남 통영시로 옮겨온 후 고종32년(1895년)에 폐지될 때까지 통제영의 본영으로 사용되었다.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통제영의 객사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동국여지지}의 기록에 의하면 세병관은 통제 사영으로 매년 춘추로 군사를 훈련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장수들이 모여서 고향을 지내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은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875번지 제송당 일대에 조성된 지상건물과 각종 비석, 운반이 가능한 동산문화재, 조경물을 비롯하여 주위경관까지를 통칭한다.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으로 남해안 제해권을 장악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선조26년(1593) 7월에 전라좌수영 본영을 작전에 편리한 한산도 두억포로 옮겨 전라좌수영으로 삼은 뒤, 그 해 8월 1일에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면서 이 곳을 삼군수군통제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정유재란이 발발한 보름 후인 선조 30년(1597) 2월에 충무공이 삭탈관직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갈 때까지 3년 9개월 동안 한산도는 수군의 실질적인 본영이 되었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 원균의 패전으로 통제영은 불타 버리고 폐허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140여년 만인 영조 15년(1739)에 제 107대 조경이 이곳에 부임하여 유허비를 세우면서 운주당 옛터에 집을 짓고 제송당이라는 친필 현판을 걸었다. 현재 이 유적지에는 충무사, 제송당, 수루, 한산정 등의 당우를 비롯하여, 유허비2기, 한글 유허비 1기, 통제사송덕비 7기, 비각 5동과 내삼문, 외삼문, 홍살문, 충무문, 대첩문등 5개의 문과 기타 부속 건물이 있다.²⁸⁾

통영 총렬사는 통영시 명정동 2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8년 후인 선조 39년(1606)에 제 7대 통제사 이운룡이 왕명을 받들어 이순신의 위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원래 이충무공의 사당은 공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통영과 남해 2곳에 세워졌다. 남해 총렬사는 통영 총렬사 보다 50여년 뒤에 건립됐으나 총렬사라는 사액은 같은 해인 현종 4년(1663)에 받았다. 지금 총렬사는 외삼문에 걸려 있는 사액현판은 문정공 송준길의 글씨이다. 현종 11년(1670)에 제51대 통제사 김경이 동재와 서재를 지었고 숙종7년(1681)에 제 60대 통제사 민섬이 총렬묘비를 세웠다. 그 후 숙종 21년(1840)에 제70대 통제사 최숙이 경충재를 짓고, 같은 해제 제71대 통제사 김중기가 승무당을 지었다. 현종 6년(1840)에는 이순

25) 김태웅(Kim Tai-Woong). 「통영, 이순신 그리고 시조문화」,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15, pp.186

26) 이지우 외 지음, 『통영 그리고 이순신의 발자취』, 통영 출판사, 2009, pp.71

27) 문화재청, 「洗兵館: 實測調査報告書」, 2002, pp.100

28) 이지우 외 지음, 『통영 그리고 이순신의 발자취』, 통영 출판사, 2009, pp.131~134

신의 8대손으로 172대 통제사로 부임한 이승권이 강한루영모문을 세웠다. 그 후 고종 5년(1868)에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에도 이 통영 총렬사만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총렬사는 정침을 비롯하여, 내삼문, 동재, 서재, 중문, 승무당, 경충재, 외삼문, 비각6동, 강한루, 고직사, 홍살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²⁹⁾

3. 이순신 장군과 시조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은 것처럼 예로부터 통영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시가 많이 남아 있으며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시조는 한산도가이다.³⁰⁾

閑山섬 달 붉은 밤의 戍樓에 혼조안조큰칼 녀희 초고 깃핀 시름 흐는 적의어디서
一声胡笳는나의 이를 굿나니³¹⁾

이 시조는 이순신이 무인으로서의 기상과 우국충정의 마음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특히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이 지은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통영지역의 문화와 기상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많은 문학 장르 가운데 시조 장르를 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시조 장르가 노래로 불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 단시간에 협동심을 이끌어내는 등 그 파급효과가 다른 장르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순신은 전쟁 중에 사람들의 하나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조장르를 택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무인으로서 엄청난 전략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문학장르를 택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전략가였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순신의 노래하기 전략을 밑거름으로 이 지역은 음악으로서의 시조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에 문학으로서의 시조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순신은 통영지역 시조 문화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통영지역의 군사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고 통영지역이 이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³²⁾

《참고문헌》

김태웅(Kim Tai-Woong). 「통영, 이순신 그리고 시조문화」,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015
이지우 외 지음, 「통영 그리고 이순신의 발자취」, 통영 출판사, 2009
문화재청, 「洗兵館: 實測調査報告書」, 2002

29) 위의 책, pp.143~144

30) 김태웅, 「통영, 이순신 그리고 시조문화」,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015, pp.187

31) 위의 논문, pp.190

32) 위의 논문, pp.191

『난중일기』의 문학사적 의의

- 『난중일기』의 일기문학적 특성과 텍스트유형

20181089 임소윤

“충무공 이순신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난중일기』는 일기문학이자 전쟁문학이다.”³³⁾ 『난중일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이순신 장군의 전쟁업적과 관련된 전략, 전술, 리더십과 같은 영웅적 면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난중일기』가 일기문학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개인’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난중일기』에는 영웅의 모습이 아닌, 일상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충분히 구현되어 있다.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고, 정적인 원균에 대한 원망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또한 병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고, 술과 놀이에 의존하는 모습 역시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난중일기』에는 이처럼 진솔한 고백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권위를 지녀야 할 장군으로서의 지니기 힘든 모습들이다. 이러한 면에서 『난중일기』는 개인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는 일기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⁴⁾

따라서 『난중일기』는 기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일기의 형식에서 벗어나 고뇌, 좌절, 기쁨 등 다양한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개인’을 발견하였다. 즉, 기록물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고백’에 가까운 근대적 일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³⁵⁾

또한 『난중일기』는 단순 일기문학을 넘어서 “여러 가지 성격의 텍스트가 뒤섞인 ‘종합 기록물’”³⁶⁾이라고 할 수 있다.

“난중일기는 근무일지, 전투일기, 개인일기, 종군기, ‘공문 초안’, 시/산문이라는 다양한 텍스트종류 형식이 함께 어우러진 텍스트복합체이며, 그 속에는 군인 이순신과 자연인 이순신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난중일기에는 <사적 활동 ↔ 공적 업무>, <일상 ↔ 전쟁>, <과제 ↔ 정서>, <서사 ↔ 비서사>, <사건·행위 ↔ 내면세계>와 같은 복합적·대립적 긴장 관계가 드러난다.”³⁷⁾

이렇듯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의 종합적 산물이 바로 『난중일기』이며, 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난중일기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에 따르면, 『난중일기』에는 사건·행위에 대한 서술과정에 동반되는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 감정 표출에 따른 자기 치유 기능, 사실 관계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훗날 서술자 스스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비망록적 기능, 공문 작성의 근거 자료 및 출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적 기능, 그리고 사실 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근거로 이용되는 증거적 기능과 같은 다양한 도구적 의미의

33) 장시광, 「문학 :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일상인으로서의 면모」, 온지논총 20, 2008, pp.37

34) 위의 논문, pp.36

35) 위의 논문, pp.55

36) 조국현, 「난중일기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014, pp.357

37) 위의 논문, pp.387

텍스트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³⁸⁾

《참고문헌》

조국현, 「난중일기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014

장시광, 「문학 :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일상인으로서의 면모」, 온지논총 20, 2008

38) 위의 논문, p.388

<한산도가>의 문학사적 의의

20221076 이윤석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이 이순신 장군이 라고 말하며 역사적 인물로서의 이순신을 생각한다.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요소들이 난중일기나 <한산도가>가 따라온다. 메인은 조국인 조선을 지켰던 이순신이고 전쟁을 겪으며 쓴 글들이나 말들은 서브로 빠진다. 예를 들어 이순신 하면 오르는 말인 필사즉생(必死即生)도 전쟁 속 상황에서 떠오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접한 이순신은 장군, 즉 무인으로서의 이순신이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무인이 아닌 문인으로서의 이순신을 보면 어떨까? 난중일기는 전쟁 속 상황에서 직접 적은 일기이고, <한산도가>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시조에서 당시 상황과 이순신의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 이순신을 문인으로 보며 또 이순신의 문학 작품인 <난중일기>와 <한산도가>, 그중 <한산도가>를 중심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산도가>는 이순신이 지은 시조인데 정확히 쓰인 시간은 알지 못해 조선 선조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산도가의 시를 인용해 문학사적 의의를 알아보자.

閑山島 月明夜 上戍樓(한산도 월명야 상수루)
撫大刀 深愁時(무대도 심수시)
何處一聲羌笛 更添愁(하처일성강적 갱첨수)³⁹⁾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⁴⁰⁾

위에 <한산도가>가 한자로 되어있고 밑에 있는 시는 <한산도가>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한산도가>가 한역이나 한시화 된 이유는 “기록의 요구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조로 먼저 지어졌고 이후에 한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⁴¹⁾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한산도가>에서 볼 수 있는 이순신의 모습과 당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떤 문학사적 의의가 들어나는가? “이 시조는 이순신이 무인으로서의 기상과 우국충정의 마음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특히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이 지은 작품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통영지역의 문화와 기상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⁴²⁾ “그렇다면 왜 이순신은 많은 문학 장르 가운데 시조 장르를 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시조 장르가 노래로 불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 단시간에 협동심을 이끌어내는 등 그 파급효과가 다른 장르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순신은 전쟁 중에 사람들의 하나 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조장르를 택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무인으로

39) 김태웅, 「통영, 이순신 그리고 시조문화」,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015, pp.181-201

40) 이조년, 황진이, 이순신, 최남선, 조운, 「시조시학」, 고요아침, 2009. pp.3

41) 위의 논문, pp.11

42) 위의 논문, pp.11

서 엄청난 전략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문학 장르를 택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전략가였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순신의 노래하기 전략을 밑거름으로 이 지역은 음악으로서의 시조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에 문학으로서의 시조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⁴³⁾

이처럼 <한산도가>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발견 할 수 있다. 그저 '한산도가'라는 시조를 보여주고 해석하고 의의를 찾으라고 하면 그저 전쟁 상황에서 쓰인 시조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맥락과 함께 봄으로써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의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태웅, 「통영, 이순신 그리고 시조문화.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015
이조년, 황진이, 이순신, 최남선, 조운, 「시조시학」, 고요아침, 2009

43) 위의 논문, p.11

박경리의 생애 및 대표작

철학 전공 20201008 김도현

박경리는 19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군 통영면 대화정⁴⁴⁾에서 태어났다. 1945년 진주 공립 고등여학교를 졸업 후 김행도와 결혼하게 된다. 이후 딸 김영주를 낳은 뒤 1950년 서울 가정교육사범학교⁴⁵⁾ 가정과를 졸업한다. 박경리의 본명은 박금이로 필명 박경리는 김동리가 지어준 것이다. 김동리는 박경리가 작가가 되어 문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당시 중견 작가였던 김동리는 박경리와 우연한 만남에서 박경리의 작품을 평가하고 원래 시를 쓰던 그녀에게 소설을 써보라고 권유를 하는 등 박경리를 문인의 길로 끌어들이었다. 여성 작가가 드물던 시대이기에 자신에 대한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김동리의 추천으로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등단 이후 단편 소설을 주로 쓰는데 대표작으로는 불신시대가 있다. 이후 50년대 말부터 6,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장편 소설을 많이 썼다. 박경리의 초기 작품에는 6.25전쟁 때 남편을 잃은 미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을 자주 볼 수 있다.

1962년에는 장편 소설 「김약국의 딸들」을 발표한다. 「김약국의 딸들」은 경남 통영의 유지인 김약국과 그의 다섯 명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술적인 모티프를 통한 비극적인 결말이 특징으로 독자들의 긍정적인 평가 함께 2005년 드라마를 통해 영상 매체로도 각색된다. 박경리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소설인 「토지」는 1969년에 집필했다. 이후 1994년까지 25년간 쓰게 된다. 「토지」는 집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동학 농민 운동에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약 20권이 넘는 대하소설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최참판 일가와 이용 일가의 3대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 소설이다. 앞의 김약국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드라마와 영화로 각색되어 영상화되었다. 2003년 해방 이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나비아 청산 가자를 연재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사망하게 되면서 미완결 된 작품으로 남아있다.

44) 통영시 문화동

45) 현 세종대학교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과 통영의 연관성

국어국문학 전공 20161070 이세민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은 소설 1장부터 통영의 소개로 시작한다. 통영에 대한 묘사는 세밀하게 진행된다. 통영의 동서남북을 상공에서 관찰한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 형상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고립된 섬 같이 느껴진다. 여기엔 통영 자체의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의 모습까지 반영되어 있다. 도입부에서 자세히 묘사를 하였으니 당연하게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통영이다.

도입부에서는 통영에 대한 묘사를 길고 자세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이상 자세한 묘사는 나오지 않고 간략히 표현될 뿐이다. 더하여 묘사 중 해변과 항구에 대한 비중이 꽤나 있었는데, 주된 서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산속이나 방안 교정으로 나타난다.

「김약국의 딸들」은 전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60여 년 동안 가족 3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에 걸쳐 펼쳐진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는 1장에 집중되어 있고, 다섯 딸들의 결혼, 추문, 광기, 죽음 등의 서사는 2장부터 6장에 걸쳐 비대칭 적으로 나타난다.⁴⁶⁾ 1장에서 도입부를 제외하곤 통영의 해변과 관련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2장과 6장은 그나마 항구와 해변의 모습이 등장인물의 정서 표출과 함께 묘사된다. 그러나 이야기에 핵심이 되는 장소는 좁은 골목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통영의 마을이다.

세병관, 동충해변가 등 「김약국의 딸들」에서 나오는 통영 속 지물들의 정확한 명칭과 묘사는 박경리의 고향이기에 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통영이라는 공간에 비극성을 심어준다. 등장인물들에게 ‘통영’은 “돌아가고 싶은 곳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곳⁴⁷⁾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작가의 생애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박경리는 1926년 통영의 ‘뚝지먼당’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으며 진주 여고를 다닐 무렵 명정리로 이사했다.⁴⁸⁾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통영을 다시 방문한다. 여기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해석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라면 무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박경리에게 통영은 가고 싶은 고향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재혼한 아버지가 사는 곳이기도 했다.⁴⁹⁾

작품 속 통영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비극성은 이러한 박경리의 생애에 대한 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자가 「김약국의 딸들」 속 공간과 작가가 기억하던 통영의 모습을 느껴보기 위해선 ‘박경리 생가’가 있는 마을과 통영의 항구를 한번 거닐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서피랑 공원’은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고, ‘서피랑 99계단’은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통영의 풍경을 묘사했다고 하니 같이 돌아볼만한 행선지라고 할 수 있다.

46) 유수연,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2016, pp.6

47) 방금단, 「통영-그리움의 서사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파시』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5, 2012, pp.214

48)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pp.166

49) 조윤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통영 공간의 상상력」, 批評文學 32집, 2009, pp.3

《참고문헌》

- 유수연,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2016
- 방금단, 「통영-그리움의 서사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파시』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25, 2012
-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조운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통영 공간의 상상력」, 批評文學 32집, 2009

『김약국의 딸들』의 작품설명 및 문학사적의의 : 비극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전공 20201039 박민경

박경리의 작품 『김약국의 딸들』은 1962년 전근대에서 근대로 시대가 전환되며 대를 이어 내려오는 운명적인 불행과 비극적 몰락으로 치우쳐가는 김약국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김약국의 딸들』은 1962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장편 소설로 김약국의 주인 김봉제와 충돌적인 성격으로 아내 숙정을 사모하던 송옥을 살해한 아우 봉룡, 봉룡의 아내이자 누명을 벗기 위해 비상을 먹고 자살한 숙정과 아들 성수가 등장한다. 봉제의 아내 송씨, 결핵환자였던 딸 연순과 그의 남편 몰락한 양반가의 강택진, 김약국을 이어받은 성수의 과부 첫째 딸 용숙과 지적인 여성이지만 애인 홍섭의 배신으로 상처 입고 교원생활을 하는 둘째 딸 용빈, 관능적인 여인이나 애욕에 빠지고 아편중독자에게 출가한 용란, 별거한 남편을 찾아가는 뱃길에서 죽게 된 넷째 딸 용옥.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지만 성수의 죽음 후 용빈과 통영을 떠난 용혜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와 능숙치 않은 어장사업에 손을 댔던 성수의 김약국은 점차 비극적 몰락에 이르렀고, 정국주에게 재산이 옮겨가며 몰락의 바닥에 다다랐다.⁵⁰⁾

김약국의 비극 형성 요인은 운명적 비극과 제도적 비극으로 나눌 수 있다.

운명적 불행의 측면에서, 소설의 배경인 ‘통영’과 1864~1930년대 이전 식민지 정책의 시기로 그들의 비극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김성수의 다섯 딸들 모두에게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들의 비극은 김약국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인물 간 연관성을 통해 비극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필연적 비극임을 짐작한다. 소설의 첫 장부터 배경인 통영과 시대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의 비극과 당시 통영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출한 어장이다. (중략)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 어업에, 혹은 어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면 통영은 해산물의 집산지이기도 했다. (중략) 어쨌든 다른 산골지방보다 봉건제도가 일찍 무너지고 활동의 자유, 배금사상이 보급된 것만은 사실이다. (중략) 1864년, 고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그의 아버지 대원군은 집권하였다. 그러나 병인양요(丙寅洋擾)를 겪고 극도에 달한 경제적 파탄으로 드디어 대원군은 그 패권을 민비에게 빼앗겼다. 정권이 민씨 일파에 넘어간 후에도 여전히 나라 안은 소연하였다.⁵¹⁾

해산물이 넘쳐나고 번영된 항구로 어업이 발달한 통영에서 토지에 근거한 지주 계급의 김약국 가정은 운명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다. 시대적 배경으로 “대원군은 그 패권을 민비에게 빼앗겼다”는 부분에서 당시 정치적으로 나라와 백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 없는 상황을 김약국의 가정에 빗대어 보아 시대적 불행을 통해서도 그들의 불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⁵²⁾

김약국의 비극에는 제도적 요인 또한 포함된다. 당시 가부장제가 만연하였고 정숙한 아내, 열녀, 혼전 순결 등을 여성에게 강조하며 강제하였고 남성의 욕망에 치우친 사회였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봉룡의 의심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비상을 먹고 자살한 숙정을 보면 시대적 모습에서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택하면서까지 결백함을 드러낸 여성을 옳은

5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4.23

51)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나남출판사, 2006, pp.11~12

52) 김진영, 『『김약국의 딸들』의 비극성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p.9~15

방향으로 바라보았다. 숙정은 가부장제도적 요인에 희생된 인물이다. 이때부터 불행을 계속되었고 어두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성수가 불행을 대물림 받아 성수의 다섯 딸들에게도 불행이 전승된다. 이를 통해서도 그들의 비극은 결국 운명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불행이 딸들에게 전승되는 시기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환기였으며 여성에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가부장제의 폐해는 계속되었다. 첫째 용숙은 과부였으나 죽은 남편만을 섬기며 살지 않았기에 비난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흥! 요조숙녀가 따로 있나? 남편이 있음 다 요조숙녀제.”⁵³⁾라고 말하며 그녀가 제도적 억압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둘째 용빈은 순결하였으나 애인 흥섭에게 버림받는다.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불행이 발생한 모습이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여성들의 불행을 통해 당시 가부장제로 여성이 억압된 사회로 그들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약국의 죽음으로 그들이 불행에서 해방된 것처럼 김약국의 죽음을 사회 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제도적 요인으로 가정 내 불행이 대물림되었고 이 불행은 결국 운명적이었으며, 작가는 공간 배경 통영과 시대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김약국의 비극을 전달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4.23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나남출판사, 2006

김진영, 「『김약국의 딸들』의 비극성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53)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나남출판사, 2006, pp.11~12

역사에 치이면서, 홀로 존재를 탐색한 대어

- 김춘수의 생애와 대표작

20211087 국어국문학전공 정민이

1922년 경상남도 통영읍 서정 61번지(현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61)에서 아버지 김영팔, 어머니 허명하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엄격한 유교 가풍이 흐르던 유복한 집안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⁵⁴⁾ 1935년 통영에서 경성으로 올라가 5년제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에 진학(현 경기중학교)했다. 순탄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1939년 11월에 졸업을 앞두고 돌연 자퇴를 했다.

이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1940년 4월 니혼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했다. 이때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접했는데, 그는 릴케의 시에 흠뻑 빠졌고, 이는 그의 초기 존재론적 시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 외 대학을 다니면서 상당한 습작을 하였고, 그중 두세 편의 시는 고국 신문 학예란에 투고 기재되기도 했다.⁵⁵⁾

1942년 12월, 평탄할 것만 같던 그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다. 화물선 아르바이트 도중 천황 모독과 총독 정치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방학을 앞두고 요코하마 헌병대에 끌려가 1개월 간 유치, 세다가야 경찰서에서도 6개월 유치되었다가 서울로 송치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동시에 대학에선 그를 퇴학 처리했다.⁵⁶⁾

1944년 부인 명숙경 씨와 중매결혼을 맺었다. 1946년, 통영중학교 교사로 부임해 1948년까지 근무했고, 조향, 김수돈과 함께 동인 사회집 『노만파』도 발간했지만, 이는 3집 발간 후 얼마 못 가 폐간하고 말았다. 1948년 8월, 그의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행문사)를 자비로 간행했다. 이듬해에는 마산중학교로 전근하고 1951년까지 근무했다. 1952년 대구로 올라가 설창수, 구상, 이정호, 김윤성 등과 시 비평지인 「시와 시론」을 창간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의 머릿속에 박힌 그의 대표작 「꽃」과 함께 첫 산문인 「시 스타일론」도 동시에 발표했다. 안타깝게도 비평지는 창간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됐다.⁵⁷⁾

1959년에 문교부에서 국어국문학과 교수 자격을 인정받았고, 이듬해에 마산 해인대학(현 경남대학교)에 조교수로 발령받았다. 이듬해에는 당시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인 하기락 교수의 주선으로 국어국문학과 전임 강사로 자리를 옮겼다.⁵⁸⁾ 1년 정도 해인대학과 동시 출강을 했다가 1964년 드디어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로 임용되고 1978년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대학에서 후진 양성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을 길러냈다. 동시에 문단에서는 순수시의 이론과 이 계열의 작품으로 영향력을 깊이 뿌렸다.

1969년 십여 년간의 암중모색 끝에 무의미시로 넘어가기 직전의 과도기 작품들을 묶은 시집 『타령조·기타』를 출간했다. 이 시집은 무의미시로 흘러가는 양상들을 보여줬고 장타령의 가락을 끌어들이면서 현대 문명 비판에 기울었다.⁵⁹⁾

1979년 영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직을 옮겼고, 1981년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정계로도 진출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여러 시집을 출간하면서 그의 무의미시의 연구는 끊기지 않았다. 그러나

54) 이남호·문홍술 외, 「김춘수 문학앨범: 고독한 무의미 시인이 낳은 빛나는 처용」, 웅진, 1995, pp.23

55) 위의 책, pp.28~29

56) 위의 책, pp.29

57) 김춘수, 「김춘수 시전집」, 민음사, 1994, pp.293

58) 위의 책, pp.294

59) 위의 책, pp.295

시인도 그 거대한 자연의 순리를 피해갈 순 없었다. 1999년 부인 명숙경 씨와 사별하고, 이후에 시집 두 권과 비평을 겸한 사회집 하나를 출간했다. 그러다 2004년 8월 기도폐색으로 쓰러져 호흡곤란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2004년 11월 29일 아침 9시에 향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표작>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신원문화사, 1990

《참고문헌》

최동호·신범순·정과리·이광호,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시]」, 문학과지성사, 2007

김춘수·양숙진, 「김춘수 시전집」, 현대문학, 2004

이남호·문홍술 외, 「김춘수 문학앨범: 고독한 무의미 시인이 낳은 빛나는 처용」, 웅진, 1995

김춘수, 「김춘수 시전집」, 민음사, 1994

김춘수, 「왜 나는 시인인가」, 현대문학, 2005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신원문화사, 1990

김춘수가 전하고자 했던 무의미시로서의 역사

- 김춘수의 문학사적 의의

20221003 권성진

김춘수는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 고투했던 시인이자 신이론가였다. 그가 제시한 ‘무의미 시’는 우리 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시문학사에 깊게 각인돼 있다.⁶⁰⁾ 그는 시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산문의 양식을 빌려 표현하려 했다. 시인은 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실존적 기억을 산문의 언어로 풀어내려 했기에 대체로 일상적인 표현 방식이나 언어 용법으로 구성되어있는 글의 언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몸에 각인된 역사의 폭력을 고백했고, 근대성의 이름으로 행해진 근대문명의 폭력적 진상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냈다. 무의미시의 단계로 진전될수록 의미가 지워지는 시적 경향과 달리, 그의 산문은 기억 속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의미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다.⁶¹⁾ 김춘수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하며 역사의 폭력을 고발하고 감옥체험의 부끄러운 순간을 고백한다, 이때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인 방법으로서 탈출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시적 형상화가 바로 문학사에 담긴 무의미 시라고 할 수 있다.⁶²⁾

현재까지 무의미 시를 의미의 이중 인과(double causality)의 구조로 정의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단순히 일반 언어의 의미에 대한 상관상으로서의 무의미로 간주하는 한, 무의미 시의 독특성은 이미 현대 시사에서 무수하게 출현한 여타의 초현실주의 시들의 특성에 묻히게 된다. 무의미의 이중 인과로서의 무의미시에 대한 사전적 의미의 탐색은 형식적 독특성을 규정해 줄 것이다.⁶³⁾ 규정된 독특성은 무의미시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의 확보이기도 하며 문학사의 새로운 계보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할 것이며 존재의 탐구, 대상의 즉물적 제시, 현실의 실감을 허무의지로 승화시켰던 점에서 당대는 물론 한국 문학 미래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⁶⁴⁾

유년시절의 기억이 ‘해석된 기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시인의 삶을 규정하는 특수한 기억이라 할 수 있는 이 기억을 ‘문학적 기억’이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문학적 기억은 한 시인의 시 세계를 통합하는 기억이라는 점에서 ‘미적 주제’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시인이 기억하는 과거는 문학적인 맥락으로 재구성된 과거이다.⁶⁵⁾ 김춘수의 산문에는 ‘문학적 기억’에 포함될 수 있는 유년시절의 기억들이 자주 등장한다. 형이상학적 차원으로 사물(의자)과 대면하는 순간을 표현한 것, 즉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김춘수의 무의미 시학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한 부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⁶⁾

6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4.23.

61) 오흥진, 「김춘수의 ‘무의미 시학’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2011. 02, pp.75

62) 전병준, 「김춘수 시의 변화에서 역사와 사회가 지니는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pp.182

63) 이강하, 「김춘수 무의미시의 정체성 재규정 - 시기 범주의 조정과 사전적 의미의 탐색을 통한」,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pp.2

64) 위의 논문 pp.5

65) 오흥진, 「김춘수의 ‘무의미 시학’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2011. 02, pp.19

66) 위의 논문, pp.67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2.04.23.

오홍진, 「김춘수의 '무의미 시학'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2011

전병준, 「김춘수 시의 변화에서 역사와 사회가 지니는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이강하, 「김춘수 무의미시의 정체성 재규정 - 시기 범주의 조정과 사전적 의미의 탐색을 통한」,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김춘수 시의 뉘앙스, 통영 바다

- 작품과 통영의 관련성 및 추가 관련 장소

20201021 김수인

김춘수의 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공간 이미지, 특히 지명으로 구분되는 공간이미지는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 이런 특징적인 공간과 장소는 일종의 ‘기억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유년 시절의 공간인 통영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몽상의 공간으로 나타냈다.⁶⁷⁾

전라도 여수로 빠지는 통영군 산양면 바다쪽 비탈의 양지에서 자란 푸르스름 자주빛 도는 반질하고 길쭉한, 티티새의 깃갈이 생긴 풀이다. 3월 한달은 밤이고 낮이고 온 거리가 해풍에 절은 향긋짹짹한 이 풀냄새를 내뿜는다.

- 김춘수, 「방풍」 전문⁶⁸⁾

김춘수 작품의 제목인 “방풍”은 전라도 여수로 빠지는 통영군 산양면 바다쪽 비탈의 양지에서 자란 푸르스름 자주빛 도는 반질하고 길쭉한, 티티새의 깃갈이 생긴 풀이라고 자세히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시의 주어인 방풍은 사실 김춘수의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객관적인 묘사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3월 한달은 밤이고 낮이고 온 거리가 해풍에 절은 향긋짹짹한 이 풀냄새를 내뿜는다.”라고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적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냄새를 맡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은 묘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이라는 지명을 언급함과 그 거리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는 개인적인 추억을 담고 있다고 추측된다.

요즘도 나는 화창한 대낮 길을 가다가 문득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를 들곤한다. 물론 환청이다. 갈매기의 울음은 고양이의 울음을 닮았다.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답답하다. 바다가 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고향 바다는 너무나 멀리에 있다. 대구에서 20년이나 살면서 서울에서 10년 넘어 살면서 나는 자주자주 바다를 꿈에서만 보곤 했다. 바다는 나의 생리의 한 부분처럼 되었다. 바다, 특히 통영(내고향)앞바다-한려수도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그 뉘앙스는 내 시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든 그 바닥에 깔린 표정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혼자서 생각한다.

- 김춘수⁶⁹⁾

이처럼 김춘수는 자신의 글에서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답답하다며 내 고향 통영 앞바다-한려수도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그 뉘앙스는 내 시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든 그 바닥에 깔린 표정이 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의 유려한 시구와 철학적인 시의 세계에는 통영의 아름답고 깊은 바다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춘수 문학 인생에

67) 엘리야 로드리게스, 「한국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춘수 시에 나타난 ‘기억의 공간’ 이미지 연구”, 2019, pp.79

68) 김춘수, 「김춘수 시전집」, 현대문학, 2004, pp.685

69) 김영화, 박초여름, “통영이 낳은 예술혼 ‘대여’ 김춘수, 그 이름 불러봅니다”, <한산신문>,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28>, 2022.04.22

서 통영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참고문헌》

엘리아 로드리게스, 「한국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춘수 시에 나타난 ‘기억의 공간’ 이미지 연구”」, 2019

김춘수, 「김춘수 시전집」, 현대문학, 2004

김영화, 박초여름, “통영이 낳은 예술혼 ‘대여’ 김춘수, 그 이름 불러봅니다”, <한산신문>, <http://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28>, 2022.04.22